

동아리 활동보고서

[illegible]

전문가

재무 투자는 물론이고 현대 기업이 정신과 혁신에 대한 거의 모든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중 우리가 정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업, 단순히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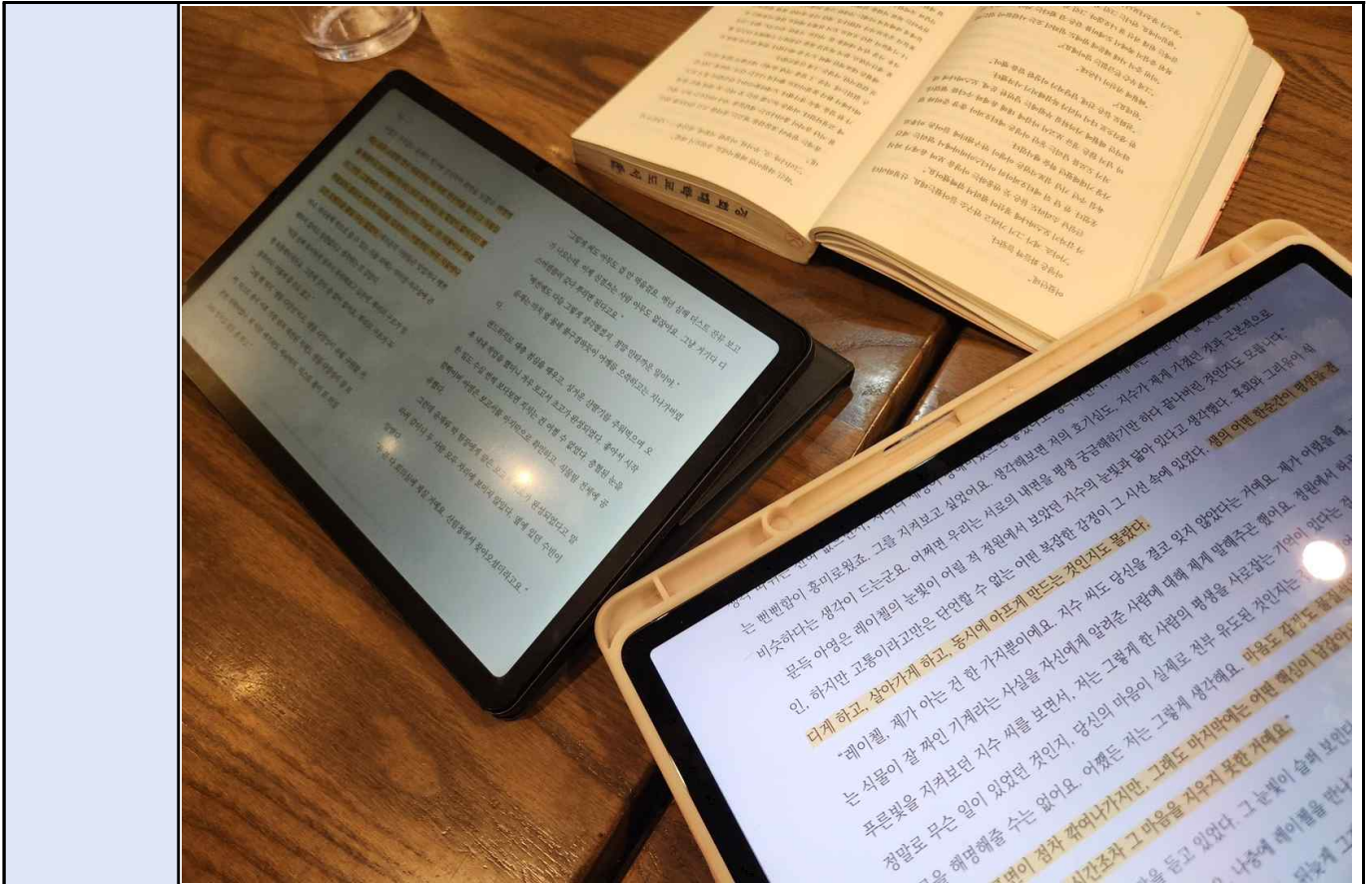
그 중에서 현재 집단적 지능, 새로운 문화적 변화 속에서는 '재해'로 분류되는 1.50 내의 '재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시장의 예고다. 4 나쁜 아이디어들은 골라내지, 만약 수익적 진보는 0.50으로 바뀌고 있다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은 수직적 정보를 통해 다양한 기업과 혁신가들을 연결하고, 이들과 교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기업가적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것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뜻하기도 강조한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송유영 (송유영)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1학기 독서토론 2차활동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토독토독
활동시간	3/29~4/12	비고	2주간 1권의 책으로 1회 모임
활동목적	다른 학과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공통의 책을 읽고 모임을 가지면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를 습관화시키고 생각들을 토론이라는 활동을 거치면서 견고히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학교 근처 카페, 동아리방(학생회관 607호)</p> <p>활동내용 : 22개의 국캠조, 18개의 설캠조로 조편성을 하였으며 각 조마다 2주의 기간동안 1권의 책을 목표로 독서활동을 진행 후 모임을 갖는다. 한 조당 4-5명의 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조마다 조원들과 상의하여 함께 읽을 책과 모임 날짜와 장소를 정한다.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각 조의 조장은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동아리 네이버카페에 업로드하여 다른 조원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한다. 중간고사 직전이라 혼합조활동은 안하고 같은 캠퍼스 사람들끼리 모임을 진행하였다.</p> <p>소감 : 1차 활동 및 개강총회를 갖고 난 후 중간고사 직전에 한 활동으로 어느정도 친목을 다진 후 진행한터라 참여율이 좋았다. 총 40개의 조들이 활동을 한만큼 다양한 책들과 생각이 오갔고 읽어보지 못했거나 평소에 관심있는 책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공유가 되어서 의미있었던 활동이었다.</p>		

4차 계층	자아 결의 구성
자아	정조업
연아	2024. 04. 08
도움 줄어 있던	주혜민, 송원, 지혜, 민재
노년층	<p>아토타믹스의 세살배기 사랑의 주체 그 이전까지의 인연으로 표현한 장이 인상깊음.</p> <p>지구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사나운 인물이 죽 버려지 않는 사람의 힘.</p> <p>공명과 사랑의 공명권 대립의 역사의성.</p>
상영작 최후법 (-18선 정정기-)	
선생님	<p>자비만 : 저 복은 명함 → 많은 후원 + 몸이3로 계속</p> <p> 세살을 가만 → 아랫배에 '자'를 '조'하고 공명들 (자 = 저수 C?) → 자비로 = 화자 C? 최후이자 귀속된 자와 다 내버려둘의 사랑? 유한? 마지막 나지막이 연두에 → 사랑결에서 형을 만났을 때 여자들이 배신하러 갔을 것인바 잘 18금 면 형을 하고 보았. </p>
	<p>자비만 저수면 (사수! 주정!)</p> <p>지혜의 개인 → 지혜는 아니냐? 조만간 아니냐? 조만간 아니냐? (타이 매스킹 할까?) </p>

샤이닝

40조: 문채화, 이민, 이은제

1. 이 책의 줄거리

책의 주인공은 숲 속에 들어와 후진도 전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도움을 요청하러 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곳에서 순백색의 존재,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

2. 책을 읽은 후 소감

주제화 제록은 서사성에 대해서 훨씬 거대인 'Kundera'의 문맥적용을 의의한다는 점에서 책에서 등장하는 순백의 존재를 강조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문맥적용 내용은 신과 죽음의 관계에 있는 주인공의 존재를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깊은 양복을 입은 신과 신사 저승사자를 의미한다 생각해볼 수 있다. 부모님이 있는 이의 자아가 가진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인공을 도둑처럼 벗어난다는 등을 치며 아닌 주인공의 위치를 찾는다. 그래서 주인공이 죽음에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도록 경계선을 풀어주는 것 같다. 그리고 깊은 양복을 입은 신사와 부모님의 존재를 침입으로 풀린다 점에서 주인공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 책의 제목 [사이닝]을 보고 난 사실 주인공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누군가가 그를 구원해 주고 끝난다고거나 생각났다. 되게 잔부하고 전형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포세는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나간다. 주인공인 '나'는 깊은 숲 속에서 빛나는 순백색의 존재를 만나게 되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여인과 다른 세계로 떠나게 된다.

한 주인공이 순백색의 존재와 함께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모든 것은 단지 거기 있을 뿐이고, 그것들은 모두 의미의 그 지평'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마치 주인공 나옴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순백색의 존재 사이인과 함께 다시 인생으로 돌아왔을 것 같다.

이문재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인공은 죽음에 이르는 순환적 상황에 처한 인물들에 대항하여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국인 '사바인'을 풍자하는 순환적 논의를 만난다. 이 장면에 영화 '해리포터'의 한 번이 떠올랐을 때 주인공의 영혼은 본래가 '레토루노스'에 있어 태워지는 것은 영혼날라가자 생각이 들었다. 순색색의 존재가 자신의 영혼과 '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주인공은 질문들 통해 순색색의 존재를 만들어감으로써 결국 '유'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조교임은 통해 인간의 본질과 실존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게 생각해보고 싶은 게 아닌가 되었다.

등록번호 33 (제4~4/12) **타인** 2024.06.09 (월) 10:00 5월

〈강형민, 실패론, 장거오, 김혜연〉

Q. 석사 졸업

정답 - 잘 공부한 책이든 그렇지 않든 읽은 책의 양이 많아 질수록 공부가 되는 것이다.

조금 아쉽지만 조속히 법제화가 되면 과세권과 수입세는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조금더는 참아 일확천금 추락전혀 생각하지 말고는 생각이 많으면 착각도

예문 : 이문집은 이문집의 모든 것은 스승의 생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룬다.

제1 조 2항은 임의적 금연구역으로 규정되었으나

정답 - 이 소문 단락을 관하여 관하여 자를 경자한다. 이 점이 원문 속의 복과 단락을 단락을 두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그러한 시골이었다. 싱그러워서 파랗게 빛난 곡창이 끝까지 건물이 실감나는 한 파란색의 운이 건장하고도

6. 인생의 참의미

소론 - "서은 밑에서 고도의 주장한다. 모든 세계는 산해사라는 한 원리로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

둘러 관한 생애에서 비롯.

<1984> 조지 오웰 / 17쪽

디지털몬테츠락과 20 김서영

책을 읽은 후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항상 감시받고 있다.”라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 첨단기술, 정보화 시대 등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 요소들은 자칫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학 정보화가 프라이버시 공간을 위협하고 이것이 바로 자유의 제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개인은 원없이 무제한 상태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1984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해석을 보았다. 하지만, 김 책을 필요는 없다. 인간에게는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 1/5까지는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싶었다. 증번부부터는 무서움이라는 감정. 후반부로 가서는 괴로움을 느꼈다. 권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다 두려워하며 읽었던 것 같다.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신념이 단단해지는 공포는 어디까지인지도 궁금증이 생겼고 새뇌당하는 기분 이 들었다. 사회과학 책인지 디스토피아인지 헷갈렸지만, 디스토피아가 너무나 맞다.

올리야를 결국 배반했을 때, 처절한 극복이라 안타깝기도 하고 꼭 그러한 선택을 해야 했을까 싶었다. 내가 만약 자 상장에 처했다면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단지는 광고라고 하는데, 지금 이순간도 나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유튜브나 SNS만 보아도 알고리즘은 이미 나를 분석하고 있다. 권력 관심도 없는 주제에 빠져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무력감에 휩싸인다. 어쨌든 나도 이미 굴복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소감문을 마친다.

4/10 오후 8:00 <저주토크>

소감문: 전윤민

대면: 김대일 박재은 이용근

후기: sf인줄 았으나 아니어서 실망

- 1 저주토크: 해석- 할아버지가 귀신인지 아닌지 모른다. vs 할아버지가 귀신이고 아들도 저주를 받아서 귀신을 보게된다
2. 머리:

제일 인상깊었던 챕터 ; 안녕 내사랑- 로봇과의 사랑 이야기. 인공지능의 발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제작 완료)이 이어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현실적인 챗터라고 생각. 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사람 같으면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듯.

뒷- 여우의 저주 이야기. 결말: 주인공이 결국 여우처럼 땃에 걸림.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충격적인 엔딩이었음. 뿌린건 다 돌아온다.

재회-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차가운 손가락 - '사람이라는거. 진짜 재미있어요....자기가 불안하다고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그대로 믿고'.

저주토크 ~ 정당한 복수인지 아닌지. 정당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않았을까?

다른 방식으로 할 것 같다.

소개 구절의 의미: 예쁘게 만들어야 만지고 싶다.

'남을 저주하면 무덤이 두 개라는 일본의 속담': 복수는 자신을 망치는 일

03.29-04.12 29초 활동보고서

알랭 드 보통.<불안>

Q1. 능력주의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데 도움이 될까?

윤서.호진: 능력주의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거 같다.

희재: 능력주의만 있는게 문제인지 같다. 세상이 능력으로만 되는게 아니다. 모든걸 노력으로만 돌리고 하나까 가난하면=노력하지 않았다 느낌으로 불리게 되는게 문제다.

능력주의 말고 그 중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노력도 재능이다... 능력주의의 부작용인가 같다.

호진: 동의한다. 결과는 집중력x시간인데 집중력이나 엉덩이가 무거운 것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

Q2. 여행은 현실도피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나: 여행이 불안을 해결할 원동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여행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혼자 여행을 떠나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는다면 불안을 극복할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윤서: 원인에 따라 달라질거 같다. 인간관계. 쓸데없는 걱정엔 생긴 불안. 사소한거에 집중할 때 같은 경우에 여행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면돌파 밖에 없지만 적어도 해결할 원동력은 줄 수 있다.

희재: 전에 여행을 갔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결이 안됐다. 하면서도 불안했다. 편하게 여행을 하지 못함. 힐링이 안됐다. 여행은 불안을 해결해주는 못하는 것 같다.

토독토독 35초 - <구의 증명>

(4월 6일 대면 만남)

독서 토론 후 감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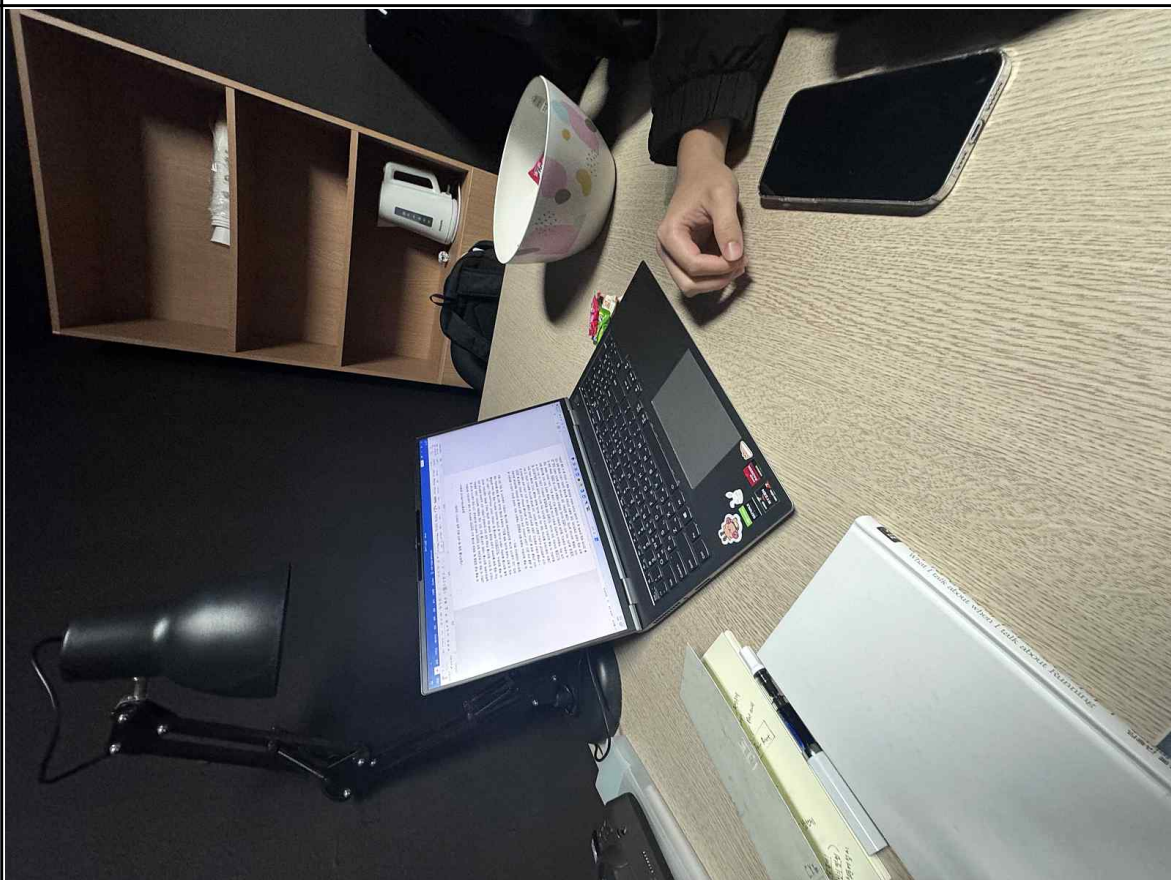
[어선화]

달이 죽은 구를 먹는 행동은 보통적인 시선으로 용납할 수 없지만 작가는 먹는다 는 행위로 보다 죽은 구를 달이 끝까지 기억하려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에게 신성한 충격을 주기위해 설정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행동을 한 달을 옹호하고싶지는 않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주변환경으로 달이 극도의 불안상태를 지속해왔을것에 연민의 감정이 든다. 책에서도 늘 달과 구는 "함께하자"라는 말을 말아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달은 정해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쪽이 먼저 잘못되든 남아있는 상태는 시체를 먹어 기억하려고했을것이다. 이런 저독하고 잘못된 사람이 표현적으로 그로테스크하지만 이면에는 큰 슬픔과 낭만이 깃들여있다고 느껴진다. 두 사람의 잘못된 사랑이야기사이애 작가가 메인으로 독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현실에서 식인과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존재한다 아닐까 감히 추측해본다. 구는 부모님에 빚을 떠맡게되어 일에 차여있지만 결국은 사재업자에게 회수를 맞이한다. 사재업자들은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람을 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된다. 달이도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체훼손을 행한 범죄자와 다를바없다. 달이는 독자를 향하여 자신에 행동에 관여 현실 사람들은 뒷맛한지. 시체를 먹는것보다 달연히 달걀겉지만 본인의 모습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있는 부분이 없는지 반문하며 끝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읽기에 거북한 소설이었지만 읽고나서 찜찜하게 계속 먹어야 남는 책이었다.

[아다나]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구와 달은 어떻게 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왜 이런 사랑의 끝이 구의 시체를 먹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렇지만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사랑하다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왜 구와 달은 일반적인 연애를 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 처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연애에 소설만큼만 알았던 이 책을 바라봤던 내 시선은 구와 달을 이렇게 만든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구와 달은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이다. 어쩌면 구와 달의 삶에서 사랑은 사치였던 것 아닐까? 서로의 삶이 너무나도 고맙쁘다보니 일반적인 사랑을 할 수 없었고. 집착적이고, 서로를 묶어매는 사랑을 한 것 같다. 사실 아직도 구와 달의 사랑을 대변하는 문장인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너를 먹을 거야'라는 말이 이해가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어렴풋이 짐작은 가지만 공감은 되지 않는다. 달이 구를 먹는 것이 달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를 추억하고 기억하려는 것으로 애써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다보니, 그 부분을 읽을 때 구와 달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잔인하고 소름 끼쳤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의 방식이 있고, 왜 이들이 이런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 사회에서 달을 찾게 되었고, 현대 사회

활동사진
(3매 이상)



혼합 23조-수레바퀴 아래서

완료

마라고 하는 압박과 끝까지 싸워서 영어학원을 그만두고 혼자서 공부했고, 선생님과 끝까지 싸워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집에서 온전히 정시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주인공 한스는 외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무지한 아버지와 오로지 성적에 집중하는 목사님. 이러한 강력한 제약에 못이겨 결국 죽음을 택하고 말았다. 이 책을 통해 헤세는 우리에게 수레바퀴 아래 깔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길 위에 있고 우리 뒤에는 큰 수레바퀴가 굴러오고 있고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앞만 바라보며 달리고 있다. 그런데 정말 앞으로만 가야 하는 것일까? 약간 옆으로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약간만 옆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수레바퀴에 깔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수레바퀴가 다시 우리를 향해 달려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쫓아오는 수레바퀴로 인해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고 너무 빠르게 다가온다 싶으면 옆으로 살짝 피하면 된다. 단지 그뿐이다.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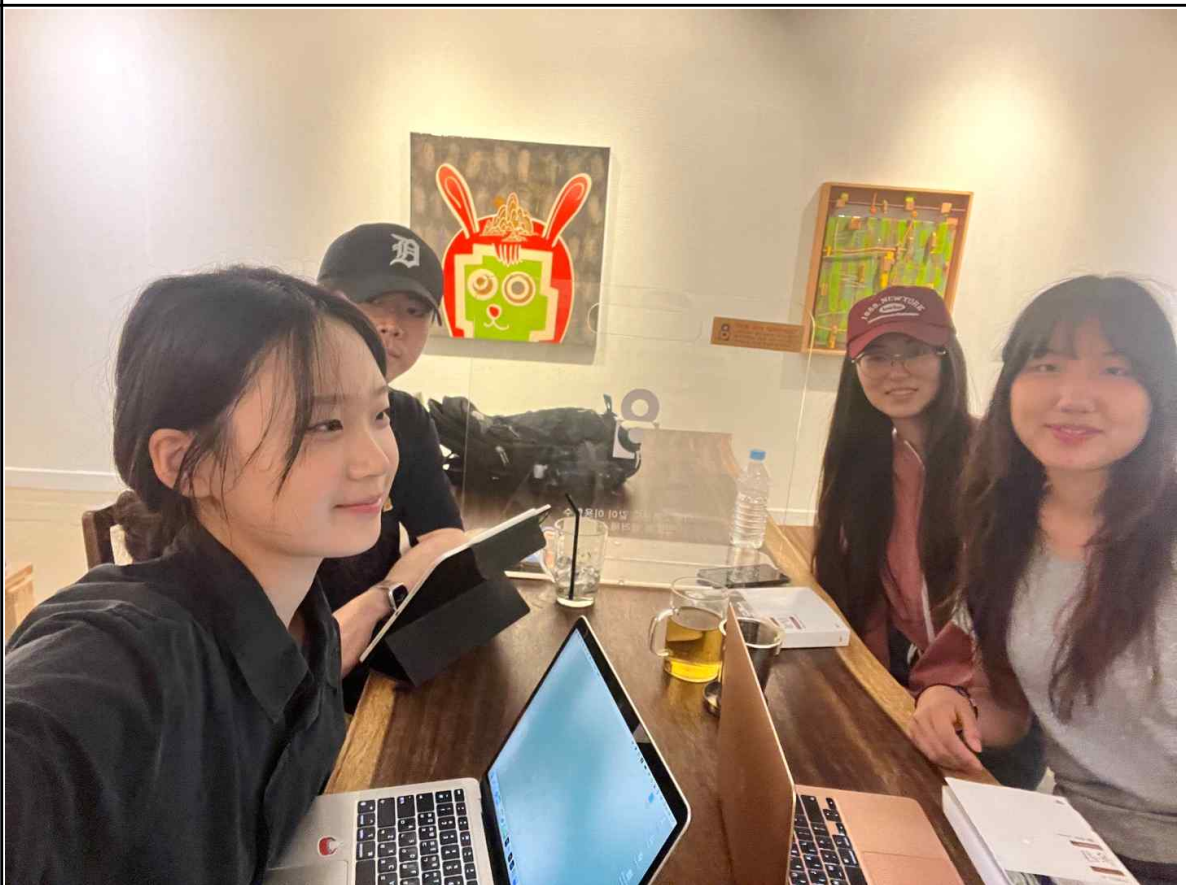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송유영 (송유영)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1학기 독서토론 3차활동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토독토독
활동시간	5/1~5/14	비고	2주간 1권의 책으로 1회 모임
활동목적	다른 학과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공통의 책을 읽고 모임을 가지면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를 습관화시키고 생각들을 토론이라는 활동을 거치면서 견고히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학교 근처 카페, 강남역 부근 카페, 동아리방(학생회관 607호)</p> <p>활동내용 : 21개의 국캠조, 2개의 혼합조, 16개의 설캠조로 조편성을 하였으며 각 조마다 2주의 기간동안 1권의 책을 목표로 독서활동을 진행 후 모임을 갖는다. 한 조당 4-5명의 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조마다 조원들과 상의하여 함께 읽을 책과 모임 날짜와 장소를 정한다.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각 조의 조장은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동아리 네이버카페에 업로드하여 다른 조원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한다.</p> <p>소감 : 중간고사 직후 조모임이여서 다시 혼합조를 편성하였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기간이여서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로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생각의 폭과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는데 유익했던 시간이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송유영 (송유영)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1학기 독서토론 4차활동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토독토독
활동시간	5/19-5/31	비고	2주간 1권의 책으로 1회 모임
활동목적	다른 학과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공통의 책을 읽고 모임을 가지면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를 습관화시키고 생각들을 토론이라는 활동을 거치면서 견고히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학교 근처 카페, 강남역 부근 카페, 동아리방(학생회관 607호)</p> <p>활동내용 : 10개의 국캠조, 2개의 혼합조, 8개의 설캠조로 조편성을 하였으며 각 조마다 2주의 기간동안 1권의 책을 목표로 독서활동을 진행 후 모임을 갖는다. 한 조당 4-5명의 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조마다 조원들과 상의하여 함께 읽을 책과 모임 날짜와 장소를 정한다.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각 조의 조장은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동아리 네이버카페에 업로드하여 다른 조원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한다. 기말직전이라 활동할 사람들을 투표해서 활동을 진행하였다.</p> <p>소감 : 기말고사 직전활동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진 못하였다. 4차활동인만큼 로테이션을 돌려도 이제는 어느정도 동아리원들을 알고 있는 상태여서 편한 분위기속에서 자연스럽게 토론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회차가 지속될수록 보고서쓰는 법도 익숙해져 다른 부원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편했다.</p>		

	<div>『도독도독 15호 5.1-5.14 활동보고서』</div> <div>도독: 천개의 파랑 (천선란)</div> <div>조원: 김민진, 허윤희, 박준하</div> <div>김민진</div> <div>기 도서가 이번엔 연극이란 유지컬로 동시에 이 작품이 실현되는데 공연을 보기 전에 책을 읽고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div> <div>간간이 빠진, 로봇과 동물의 고감이라는 생소한 소재가 더욱 더 순수하게 느껴졌다. 사립은 말을 위해, 또 로봇을 위해 그들을 고치는 역할이 되어 그들의 세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 수명이 다해 선수로서의 자격이 미달된 투테이를 살리고, 부서진 부품들을 모아 다시 고쳐 휴머노이드 기구를 만들어낸 인간은 우리가 다 같이 호흡을 맞추고 점차겨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참신한 소재이면서도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잃어버려진 된다는 사람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div> <div>허윤희</div> <div>천개의 파랑은 sf 소설이다. 나는 사실 소설 장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도 아니고 현재나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장르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번 읽은 적은 있다면 온전히 외우는 느낌이 없어 늘 재미가 떨어졌다. 천개의 파랑도 sf 소설 장르이지만 읽으면서 인간의 이기심 동물학대 고감 등등 우리, 내 삶에서 흔하게 접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어 흥미가 떨어지지 않았다</div> <div>박준하</div> <div>물리는 인간의 삶으로 인해 탄생한 존재다. 인간의 연어를 긍정해 하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지 않은 진동 표정 등을 보며 감정을 이해하고 배워간다. 나와는 다르게 어떠한 선입견이 없는 아주 순수한 존재다. 물리는 순수한 질문에 당황하고는 한다. 물리는 인간 중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아주 순수하게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보경이 그립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리움이 무엇인가? 라고 물리는 질문한다. 보경에게 한 질문이지만 책을 읽고 있는 나에게도 그리움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리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여전히 그런데 그때가 그립네 하지만 그리움이 뭐지 라는 생각은 한번도 예쁜 적이 없었다. 이처럼 이 책은 재미를 더해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대단 것 같다</div> <div>김민진</div> <div>도독도독 24.1호 33호 (김지혜, 김강하, 이재현, 유서람)</div> <div>김지혜</div> <div>김지혜: 지금은 질문에서 많이 벗어나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질문이 나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었다. 그 때의 기억을 떠올려 왔는데 어떤 부분은 공감을 하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설득을 당했다. 알형 도 보통의 전작이 그랬듯이 이 책도 역시 수준으로 커져서 끝까지 사를을 이어가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질문이 다시 마주칠 일이 없다면 좋을 텐데,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이 책을 떠올려야겠다</div> <div>김강하</div> <div>김강하: 불만이라는 말이 많이 느끼는 불만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쉽게 제기하지 못하는 불만의 근원을 어떻게 탐구할 수 있었다. 불만의 근원으로 불확실성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었다.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늘 찾아오며, 그 선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오랫동안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던 것 같다. 특히 대학에 오며 자유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기도 했고, 또 취업을 앞둔 나에게 불확실한 결과와 미래들이 불만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불만에 대한 여러 해결책 중에서는 실학적 해결책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는데, 결국 나 자신을 아는 과정을 통해 불만을 타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도 공감을 할 수 있었다. 정치나 예술 분야를 통해 불만을 극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알고싶어졌다</div> <div>이재현</div> <div>이재현: 불만이라는 책의 초반부의 불만의 원인을 소개했을 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려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책에 나온 문장 중 가장 건드린 것은 성공은 가족은 친구들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기적이었었다. 친구의 축하를 당연하게, 솔직하게 축하하지 못하고 원가 투입한 이 기부의 정체를 이 책은 밝혀주었다. 이러한 불만의 해소 방법을 이 책은 5 가지 방법으로 제안해주었다. 그 중 이번 도독도독 토론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실학적 대답'이었다. 결국 나 자신이 잘못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온 문장 중 '인생 정경이 한 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귀여우려라'면 그들의 무정한 배수길채를 받는다 해서 연주는 기분이 좋을까? 가 있다. 꼭 남들이 나를 불만하게 만들기 위해 잘못된 잣대를 들이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꼭 나는 경멸을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 남의 시선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div> <div>유서람</div> <div>유서람: '불만을 읽으며, 나의 이유가 없어보이는 불만에 대한 해답이 보였다. 불만의 다섯 가지 이유 중, 나의 불만의 주된 원인은 '기대'이다. 부나 존중에 대한 적절한 수준은 독점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존경집단의 조건과 비교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나는 내 주변의 뛰어난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만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대 수준과 수모를 당할 위험은 비례한다. 내가 주변을 보며 나의 높아진 만큼 내 자신에게 내려는 것도 많아짐과 동시에, 실제로 달라지지 못하는 나를 보다 영구적인 불만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여준 방식이 필수적이다.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윤리적 양심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내적 충고를 표명해야한다. 성공과 실패로 나가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패를 실패로 규정하지 말고,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든 결과의 다양성을 존중하면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div>	<div>『』</div> <div>뇌 마케팅의 비밀을 열다</div> <div>2호</div> <div>진현</div> <div>사람은 감정에 의해 결정한다. 사람은 균형, 자극, 지배 시스템이 있다. 나는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의 심리로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알게 되었다. 첫째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면 좋은 점은 불필요하게 써주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욕구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좋은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욕망을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동기 부여가 된다. 또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불투명성을 깨달았다. 나의 뇌는 30만 년 전의 뇌이다. 나는 원시인이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다. 이 책을 보고 내가 이러는 것은 본능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본능임을 알게 되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행복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재밌었다. 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어 기뻐했다.</div> <div>박유진</div> <div>사람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나에게 굉장히 생소하다. 원동기 기술 그 자체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어떻게 상품들을 팔 수 있을지에 관한 정보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초반에는 그렇게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책을 읽어가며 점점 마케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마케팅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나는 종종 인간의 심리에 관심을 갖곤 한다. 그래서 종종 범죄 심리학 관련 유튜브도 많이 보는 등 심리학 지식을 접하는 것을 즐긴다. 전반에 걸쳐 다뤄지는 중요 키워드는 '감정 강화'다. 감정 강화란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증강시키고 강화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전도될 때 구매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마케팅, 판매를 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와 감정, 심리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꽤나 흥미로웠다. 철저한 논거지던 마케팅이 한 발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마케팅도 인간의 심리에 관한 문제이며 마케팅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생각보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결정에는 항상 감정이 개입한다고 한다. 따라서 늘 감정이 개입하기에 어떠한 제품을 산다고 보다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 등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심리와 상품 판매를 연결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div>
	<div>3) 기계화된 사회와 악물이 만연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에서의 윤리적 문제가 더 심각한가?</div> <div>이현화</div> <div>이현화: 두 사회 모두 인간의 권리를 위해 개발된 것들이 팽배하여 인간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나는 악물이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무의식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본인이 인지할 수 없기에 가장 무서운 상태라 본다.</div> <div>박현빈</div> <div>박현빈: ... 당연히 악물이 만연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기계화된 사회는 인간이 더욱 더 편리하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전시키는 형태다. 결국 기계화의 목적이 '인간의 편리한 삶'인 것이다. 그런데 악물은 인간의 편리한 삶을 넘어 인간을 지배하며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인간 자체를 활용하여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거나 인간성 자체를 무력화시켜 인간의 기쁨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악물이 훨씬 파괴적인 사회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div> <div>이다니</div> <div>이다니: 두 사회 모두 윤리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악물의 만연하는 사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 왜냐하면 악물이 개인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시켜 자유와 자기결정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div> <div>홍은서</div> <div>홍은서: 악물이 만연한 사회의 문제점이 분명하다. 악물은 인간을 종속시킨다. 2번 질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종속된 인간은 정신이 흐려지고 본능력이 약해진다.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악물이 만연한 사회의 문제점에 나는 주목한다.</div> <div>임호진</div> <div>임호진: 악물이 만연하는 사회이다. 기계의 발전은 필연적이고 지금도 인류의 일부를 기계로 대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2045년 정도가 되면 기계와 인간이 하나로 합쳐져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특이점이 온다고 한다. 이처럼 기계화된 사회는 우리 눈 앞에 있지만 악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완벽한 신체를 만드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크고 히틀러 같은 우생학적 사고를 기계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div> <div>권민수</div> <div>권민수: 악물이 만연한 사회, 물론 고도로 기계화된 사회는 몇 인간들이 설 자리가 잃게 만들고, 인간의 기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악물이 만연한 사회는 인간의 '의지' 자체를 무화시킨다. 만약에 종속된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마치 종이 같다. 악물이 만연한 사회에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만 같은 이들이 존재할 것이다.</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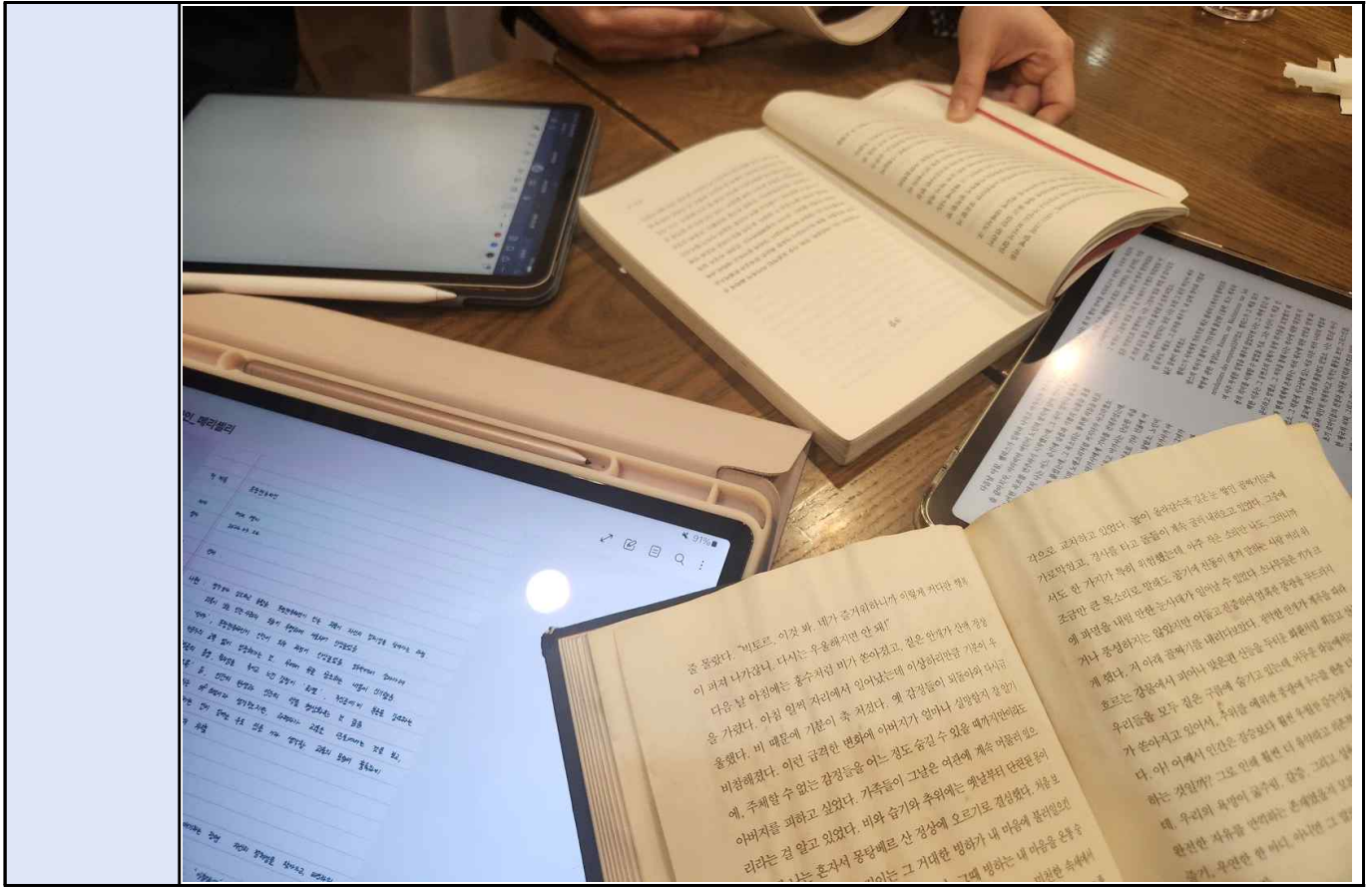
활동사진 (3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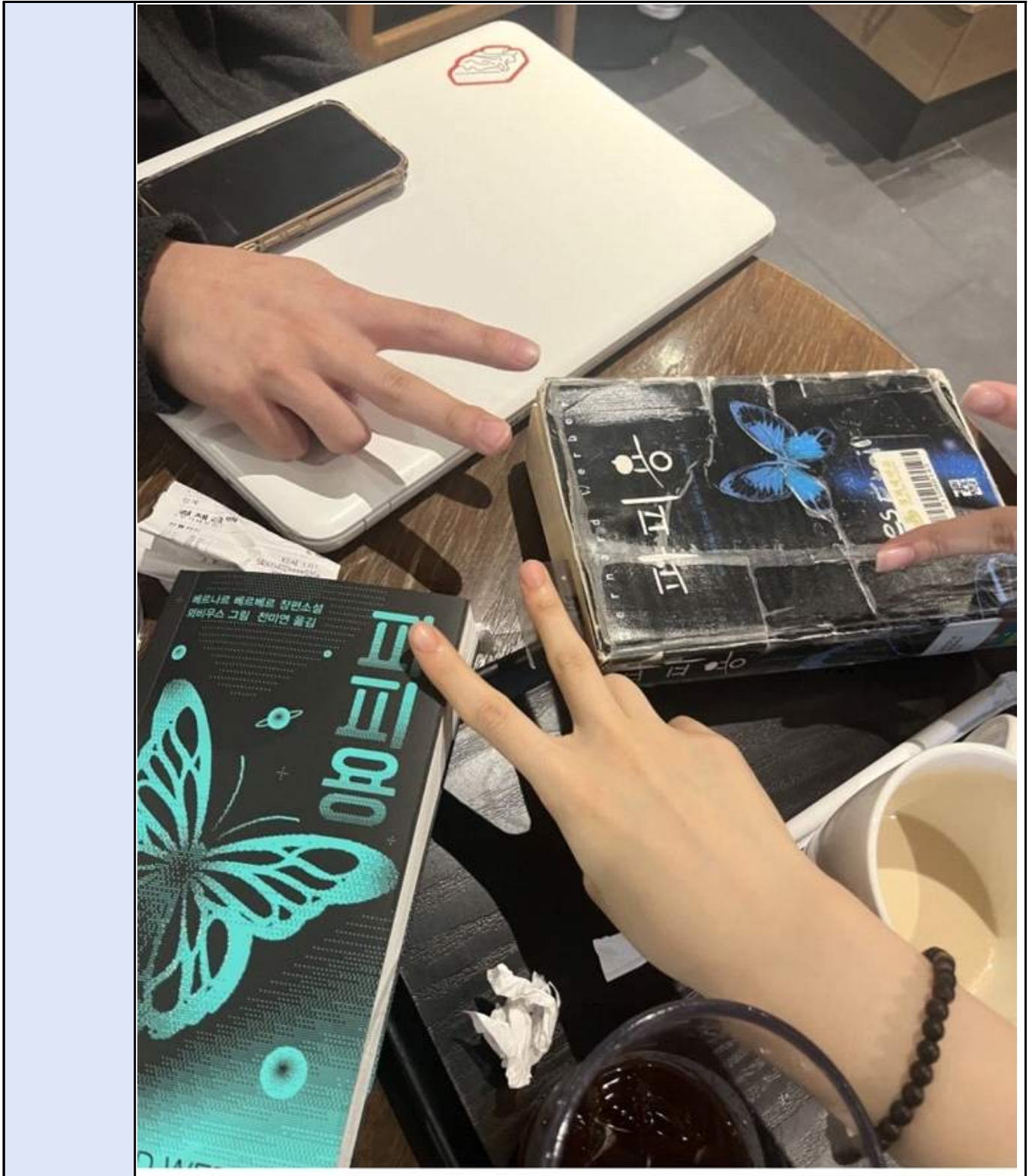
< 05.01-05.14 22조 활... :

모습을 에바부인으로 투영했다고 생각한다 외적인면도 있었겠지만 에바부인 또한 데미안처럼 자신의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였기에 이성적 끌림이라기 보단 데미안의 모습이 투영된 사람이어서 싱클레어는 에바부인을 좋아했던 것 같다.

3/4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송유영 (송유영)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1학기 독서토론 5차활동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토독토독
활동시간	7/1-7/15	비고	2주간 1권의 책으로 1회 모임
활동목적	다른 학과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공통의 책을 읽고 모임을 가지면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를 습관화시키고 생각들을 토론이라는 활동을 거치면서 견고히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학교 근처 카페, 강남역 부근 카페, 동아리방(학생회관 607호)</p> <p>활동내용 : 4개의 국캠조, 2개의 혼합조, 2개의 설캠조로 조편성을 하였으며 각 조마다 2주의 기간동안 1권의 책을 목표로 독서활동을 진행 후 모임을 갖는다. 한 조당 4-5명의 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조마다 조원들과 상의하여 함께 읽을 책과 모임 날짜와 장소를 정한다.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각 조의 조장은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동아리 네이버카페에 업로드하여 다른 조원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한다. 방학이후의 첫 활동으로 방학때 활동할 사람들 한해서 활동을 진행하였다.</p> <p>소감 : 방학 첫 활동으로 학기 중 외의 시간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방학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하면서 활동하지 않는 조원들도 활동하는 조원들의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를 하지 않음에도 책의 내용파악 및 소감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활동이었다.</p>		

[07.01-07.15 혼잡 5초 활동 보고서]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전원 소강문 대제

초원: 강지수, 김서윤, 김진서

강지수 소강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는 유토피아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신의 말이 결합을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만든 지구 밖의 '마을'. 실제로 그 마을에서는 지구에서는 비개조인이라 취급받을 결합이라도 서로 용을 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성년처럼 떠나는 순례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 이유는 아마 단 한 사람, 많이 괴로울 것이지만 그보다 아주 행복할 것. 오직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나의 결합이 지부로 드러나고 손가락질받는 세상의 괴로움을 달을 수 있다는 사랑의 힘을 많이 느끼게 해준 단편이었다. 어쩌면 사랑이 그런 결집까지도 다 보듬어 줄 수 있기에 '마을'에 다시 돌아오기보다 지구에 남아있기를 택한 것 같다.

'관내분실'을 통해서 공간의 가장 큰 양분은 경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마인드들은 우리가 상전에 맺었던 관계들, 우리가 공유했던 것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뇌에 남기는 흔적들과 세상에 남기는 흔적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우리는 마인드들 통해 그들의 삶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레이터의 음성이다. 음성을 복원하기 위해 지인은 음파의 흔적을 찾는다. 나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음파와 연관이 깊은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떠올려보게 되었다. '소루 실의 엄마, 세게 한우마에 있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을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쏟아지는 조망 속에서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와 행상을 가진 엄마.' 문득 우리 엄마가 떠올랐는데 제 이름이 있을지도 누군가의 엄마로 제 이름이 많이 묻히진 않았을까 생각했다. 지인도 아이를 가지고 음파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같은 경험을 해보니 선명히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인덱스를 지우는 것이 소멸과는 다르다.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의 사망과 실종이 다른 것처럼. 이 구절도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단편에서 안나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단호하게 남자에게 이야기 한 부분이 생각났다. 어쩌면 안나에게도 가족들은 실종과 같아서, 혼자가 되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더는 그리워할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 더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다 죽었을지도 있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슬로베니아로 떠나려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진서 감상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읽고 싶었던 동기는 단지 베스트셀러에 항상 있는 것 같은 책이기에 궁금했다. 책 제목이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눈에 띄게 보인 것이 전부였다.

7가지의 단편 소설을 묶은 SF 소설인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편은 2개를 뽑고 싶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와 공생 가설이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는 올해 20살이 된 나에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준 단편소설이었다. 순례자의 사전적 정의부터 찾아봤는데, "순례자란 거룩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입니다."라는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마을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성인이 된 내가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과 비슷한 유대의 감정이 들었다. 김초엽 작가는 본문 중에 "그들은 왜 지구에 남을까? 이 아름다운 마을을 떠나, 보호와 평화를 벗어나, 그렇게 끔찍하고 외롭고 쓸쓸한 풍경을 보고도 왜 여기가 아닌 그 세계를 선택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들에 대해 작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 질문들에 답을 한다. 이 부분에서 나는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을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사랑 때문에 순례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어엿던 사실을 결말에 이르러 서아 생각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그때 나는 알았어.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라는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 작가만의 독창적인 사랑의 정의를 서술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공생 가설'의 도입은 이렇게 시작된다. "루드밀라 마르코프에게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에 관한 기억이 있었다." 강렬한 첫 문장을 읽고 나서부터 웅얼거리는 듯이 읽기 시작했다.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술가 루드밀라의 작품, 루드밀라의 행성과 유년기 기억 상실증에 관한 이상한 연구 결과의 연관성을 발견한 연구원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과의 공생 가설을 풀어가는 마지막 과정에서 수빈이 느낀 이상한 감정이 정말 인상 깊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느낀 적 없는 무언가가 아주 그리워지는 감정이었다."

수빈의 기억 저장소에서 그들이 상기돼서?라는 열린 결말을 선사해 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SF 소설을 평소에 잘 읽어보지 못했는데 김초엽 작가의 책은 묘하게 공상적이면서 현실성이 같이 부각되어 감동받은 부분들이 많았다. 내용의 흐름 전개에 있어서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유익했다.

토독토독 7주 활동보고서

07.01-07.15

김성현

이 책은 실제 범죄인 출신의 저자가 법 관련 서적임에도 가볍게 읽기 좋도록 다양한 예시소설과 자신의 생각을 밝힌 책이었다. 그 중 인상깊었던 부분과 느꼈을 소감을 소개하자면 불법촬영 사건과 사라진 변호사 사건이었다.

첫 번째로, 글자만 무엇일까 / 2017년 불법촬영 무죄 사건과 대판다 읽히지 못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었다. 형벌의 역할은 나쁜 사람을 낚아채 버리고 처벌하는 것 보다 한 명이 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형량에는 모순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범죄인이 아닌 이상 이러한 세상은 사형까지 말하는 어려움으로 범죄의 중요성과 범죄자를 징벌하고 싶은 마음이 얽혀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로, 장의갑과 정의 / 2004년 사라진 변호사 사건 부분이 기억에 남았다. 30대 남자 변호사가 실종되고 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정형상 약혼녀의 살인이 매우 유력했으나,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시기와 공문서 위조죄에만 그친 사건이다. 실제로 이 약혼녀는 존인신도까지 한 채로 변호사 실종 한 날 자 영의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2년의 고소도 수감 후 출소하여 15억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받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모든 정형상의 근거가 그 여자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어서 1심에서는 만사가 정형갑을 변호해 살인 혐의를 간접적으로 반명한 수치로, 사기의 범행 최고형인 10년을 선고 했으나 재심을 거쳐 결국 징역 2년에 그치고만 사건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호사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집 수사, 판결 모두 사람이 하는 일하기에 완벽한 해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세상 느껴져 허무한 느낌이 들었다. 법정의 틀을 피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적인정신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처벌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김수빈

'판정의 재구성',은 보형사제, 살인 등 주요 형사법적 판단을 판사의 눈으로 재해석해보면서 판결의 논리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 없는지를 고찰해보는 책이다. 책을 읽으면서 첫째로, 스스로 여취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다. '외국처럼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많았고, '원형적'과 같이 관념적인 어휘도 많았다. 토독토독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휘에도 늘릴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판정의 재구성',은 마치 나무위키 마지 살인사건을 읽는 것처럼 단편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수리의 재판에서는 돈을 준 사람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알관성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되나, 살인죄는 형량이 무期徒刑에 무죄 판결의 원칙을 더욱 강하게 가져간다"는 부분이었다. 저자는 이 부분에 있어 오히려 최가 무기징역으로 유죄하다는 예외라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범죄자의 고백을 물려가 만들 수도 있었다는 우려를 낳았다. 셋째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 개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토독토독 3주 활동보고서

활동기간 : 7/1 - 7/15

활동은 7월 14일 오후 8시 zoom meeting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김선호, 배승희 2명임. 나머지 참석자는 개인 사정으로 소강문으로 대체 하도록 하였음.

Zoom 토론 내용 요약

승희 : 전에 만났던 조에서 이야기 유전자 원은 칩 있다. 이번에 읽은 책인 휴먼카인드와 대치되는 책인데 읽으면서 더 인상적이었다. 사실 이거 유전자를 너무 인상 깊게 읽었고, 그 내용에 매우 유익했다. 그래서 그나가 휴먼카인드에서 말하는 것들을 문헌히 공감하지는 못했다. 특히 진화적 측면에서 과거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예시를 들었다. 발견되는 유골을 통해 추측해보면, 호모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폭독했음지 오르고, 신체적으로 더 강했음지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현재까지 생존하지 못했고 호모사피엔스는 현재 지구를 공진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이유로 작가는 생각하는 능력의 언급한다. 연대와 상호작용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능력의 연장이 어떻게 했을까? 다른 요소들이 있었을텐데, 의견을 지지하기엔 근거가 부족할 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선호 : 나같은 경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내용이 전쟁은 분화가 아니라고 했던 내용이었다. 군대를 다녀오고, 해병군 훈련을 몇 번 하면서 괴박을 함께 살아가는 장전된 중을 봐 본 경험이 있다. 그런데 전쟁에서 보면 중을 못쓰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더 높다는 내용을 보고, 나도 생각해본다. 사람을 거당해서 과연 중을 쓸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을 했다. 사람을 쓴다는 생각이라기보다, 나라를 지킨다, 가족, 친구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쓰지않을까 생각한다. 막상 그런 상황에 당치면 어떨지 모르겠다.

승희 : 뉴스에 대한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버주는 이슈거리들을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온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를 비교한 부분도 인상 깊었다. 대략생활을 하며 전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어하는데, 스스로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는 내용을 보며 나도 그런 중반한 내재적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활동 내용

양혜인:

홀든의 충동적이고 고집스런 행동들은 사춘기 소년의 반항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에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대답하는 장면에서 숨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홀든은 고등학생입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이죠. 저는 사춘기도 지났고 어른이 되었지만 홀든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홀든이 사회의 부조리함, 모순, 더러움에 반응하는 방식은 충동적이고도 열정적입니다. 그런 단호한 모습에서 그저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제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데 자꾸 내 삶이 들춰지는. 저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생동감 어린 문자를 꼭꼭 씹어 먹는 게 소설이 재미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맨날 자기 계발서, 자본주의 등등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만 해! 하는 생각을 뒤집어 준 독서 동아리의 첫 책이었습니다.

여동생 피비가 본 홀든은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부정적이고도 비관적인 오빠입니다. 그러나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하는 답변에서 그의 단단함이라고 해야 할까. 줏대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반항아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악의 유혹을 받을 때, 또는 우리가 결길로 접어들



토독토독 23조 활동보고서

완료



3/3

유혹자와 희생자, 그리고 세부적인 계통으로 쪼개고, 취향과 상황에 맞는 공략법을 전략집처럼 제시하는 것이 어찌면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단 의견도 재미있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한 개인 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하여 바라보는 것 역시 슬프지만란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최근 화제가 된 '집들이 겨냥 세팅 서비스'와 같은 위김을 포장과 연기로 봐야 하는 것인지, 본성이자 배려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감 없이 다양한 주제로 인상 깊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개성을 알아가며 발견한 색다른 기쁨과 뿌듯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송유영 (송유영)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1학기 독서토론 중간고사 기간 활동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토독토독
활동시간	4/15-5/1	비고	2주간 1권의 책으로 1회 모임
활동목적	다른 학과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공통의 책을 읽고 모임을 가지면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를 습관화시키고 생각들을 토론이라는 활동을 거치면서 견고히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학교 근처 카페, 강남역 부근 카페, 동아리방(학생회관 607호)</p> <p>활동내용 : 4개의 국캠조, 2개의 혼합조, 4개의 설캠조로 조편성을 하였으며 각 조마다 2주의 기간동안 1권의 책을 목표로 독서활동을 진행 후 모임을 갖는다. 한 조당 4-5명의 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조마다 조원들과 상의하여 함께 읽을 책과 모임 날짜와 장소를 정한다.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각 조의 조장은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동아리 네이버카페에 업로드하여 다른 조원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한다.</p> <p>소감 : 중간고사 기간, 시험으로 바쁜 와중에도 독서활동을 하고 싶은 부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부원들의 참여로 진행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로 동아리활동을 정말 사랑하고 즐기는구나를 깨닫게 해준 활동이었다.</p>		

‘싯다르타’를 읽으며 - 신우진

책이 전반적인 내용으로 내게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 즉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색해야 한다’라는 주제는 내게 큰 감명을 주지 못했다. 자아의 중요성을 모를 뿐더러 자아에 대한 탐색을 하기엔 내겐 현재의 책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난 책의 초반부 등장한 고빈다와 주인공 싯다르타 사이의 관계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사실 책의 초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싯다르타의 언행이나 행동은 나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 고빈다의 질문에 빈정되는 것 같은 말투는 그가 책에서 고상하고 예의바른 사람으로 구슬되어도 내가 그를 좋게 볼 수 없는 이유였다. 하지만 책을 읽고 다시 한 번 그 페이지로 넘어가 싯다르타의 말을 꼭꼭 읽어보니 고빈다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 진정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에 다가가도록 그를 돕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고빈다가 하는 행동은 현실의 ‘나’와 굉장히 닮은 모습이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저 남이 하기에 따라하며 잘하는 사람에게 붙어 그에게서 뭔가 얻기만을 기대하는 나의 모습과 그저 우정이라는 핑계로 싯다르타의 여행에 함께 동반하여 진리를 찾아가는 고빈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보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타마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 싯다르타를 떠나 진정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 이 사실이 나와 그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내가 ‘진정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게해주는 햇빛같은 사실이었다.

23살이 된 현재의 나는 아직 진정 내가 하고싶은 것이 뭔지 모른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관련 계열으로 취업할 지도 모르겠고, 내가 대학을 다니고 싶어하는데 대해서도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그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멈춰있기엔 현실은 끊임 없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려하고 우리를 도태시키려한다. 그렇기에 내가 선택한 방법이 그제 무엇이 됐든 남이 하는건 다 해보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붙어 그가 하는것을 배워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지 못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구심과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고빈다는 이러한 나에게 희망이자 위로가 되었다.

사람들이 생각의 형태로 떠올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일면적인 진리, 반쪽의 진리로서 정체성, 완전성,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 164p.

싯다르타가 단일성에 대한 깨달음을 고빈다에게 전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부분이 유독 인상깊었는데, 말이나 글로 무언갈 표현한 순간부터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들은 활자 속에 제한되고 나의 시선 속에, 나의 언어 속에 제한된다. 결국 ‘나’라는 제한을 넘어서지 못한 생각들은 타인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다. 사유를 통한 생각들이 속세에서의 감각으로 온전히 느껴짐에도 그것은 ‘나’를 벗어날 수 없다. 싯다르타는 경험 속에서 ‘나’를 깨닫고,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하나 뿐임을 깨닫는다. 그렇기에 결국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는 주체는 ‘나’여야만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경험의 주체를 남에게 떠맡겼는가? 돌아해보면 대다수의 우리는 그저 남들이 정해주는 길을 걷는 것이 ‘정도’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험해야 하고 스스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길을 정해야 하며, 경험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한다.

싯다르타를 읽으며 ‘수레바퀴 아래서’와 ‘데미안’을 이은 헤르만 헤세의 진리를 비로소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기분이었다. 누구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깨닫고 싶어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전한 ‘나’를 발견해내길 어려워하는데 이 책이, 싯다르타가, 고빈다가 그런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줄거리: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난 싯다르타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바라문들 중에서도 학식이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었다.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싯다르타는 점차 본인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친구 고빈다와 함께 사문생활을 하러 가게 된다.

싯다르타는 사문생활을 하면서 기다림, 사색, 단식을 배웠다. 사문생활을 하던 도중 부처 고타마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고빈다와 싯다르타는 사문생활을 청산하고 고타마를 만나러 가게 된다. 고타마를 보자마자 완전한 존재임을 알아챈 싯다르타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며 진리는 말로써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타마의 교리에 귀의하기로 결심한 고빈다에 작별 인사를 건넨 후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 기생 카말라, 상인 카마스와미와 함께 지내면서 세속생활을 하다 탐욕의 늪처럼 되어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 본인을 보며 죽기로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고 다시 살아간다. 벤틀공 바르테조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여러가지들 배우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느낀 점: 강은 깊고 맑으며 어디에나 존재하고 언제나 순환한다. 강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지금껏 살아갈 때 늘 시간의 쫓김을 받으며 나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상처를 입혀 왔다. 사실, 시간을 신경쓰지 않고 차분히 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늘 부정적인 생각(이거 언제 다하냐... 이 일을 하는데 대중 이정도까 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절대 다 못해...)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사람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에 못이겨 했었다. 늘 여러가지를 탐구하지 않고 하나의 목표만 설정한 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 왔다. 싯다르타는 그런 나에게 말한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뜻이지만 찾아낸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 열려있는 상태라고. 하나의 목표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면서 살라고. 또 싯다르타는 말한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선하게 보이며, 죽음이나 삶이나 다 같게 보이며, 직악이나 신성함이 똑같이,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이 똑같이 보인다는 것. 따라서 세상만사는 오로지 나의 관행만 응낙, 그리고 나의 선한 양해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세상이 나에게 고통받으라고 요구하면 관행히 수락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고통뒤에는 성장이 있고 고통이 힘들긴 하지만 슬플 것 같진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껏 슬픈 고통을 겪었고 그러한 고통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당차게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수락하겠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성장을 위해서.

1) 김중진

책 제목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들을 잊지 말자는 부분으로 처음에 생각했음. 그러나, 마지막 글쓴이의 말에서 수녀회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면서 본인은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비판받을 만하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자신과 관련 없다고.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며 사소한 것들이 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음. 책이 굉장히 짧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작가의 문장 구사력이나 배경 묘사가 굉장히 깊은 묘미가 있었다고 생각함.

2) 유승민

작가 소개 보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책을 읽었는데, 한 달자의 일상적인 가정사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했고, 끝까지 읽었을 때 무슨 내중인지 잘 몰랐음. 근데, 글쓴이의 글을 볼 때 사회적인 현상을 고발하는 것을 보고 문장들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수녀원에 나와서 뭘해서 차 타고 가는데 자주 우회전하면서 돌아가다가 길을 잃고 한 할머니한테 앞으로 가면 뭐가 있다고 물어보는데, 책 제목에 걸맞게 날이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모습을 각별히 주의하는 부분에서 인상 깊게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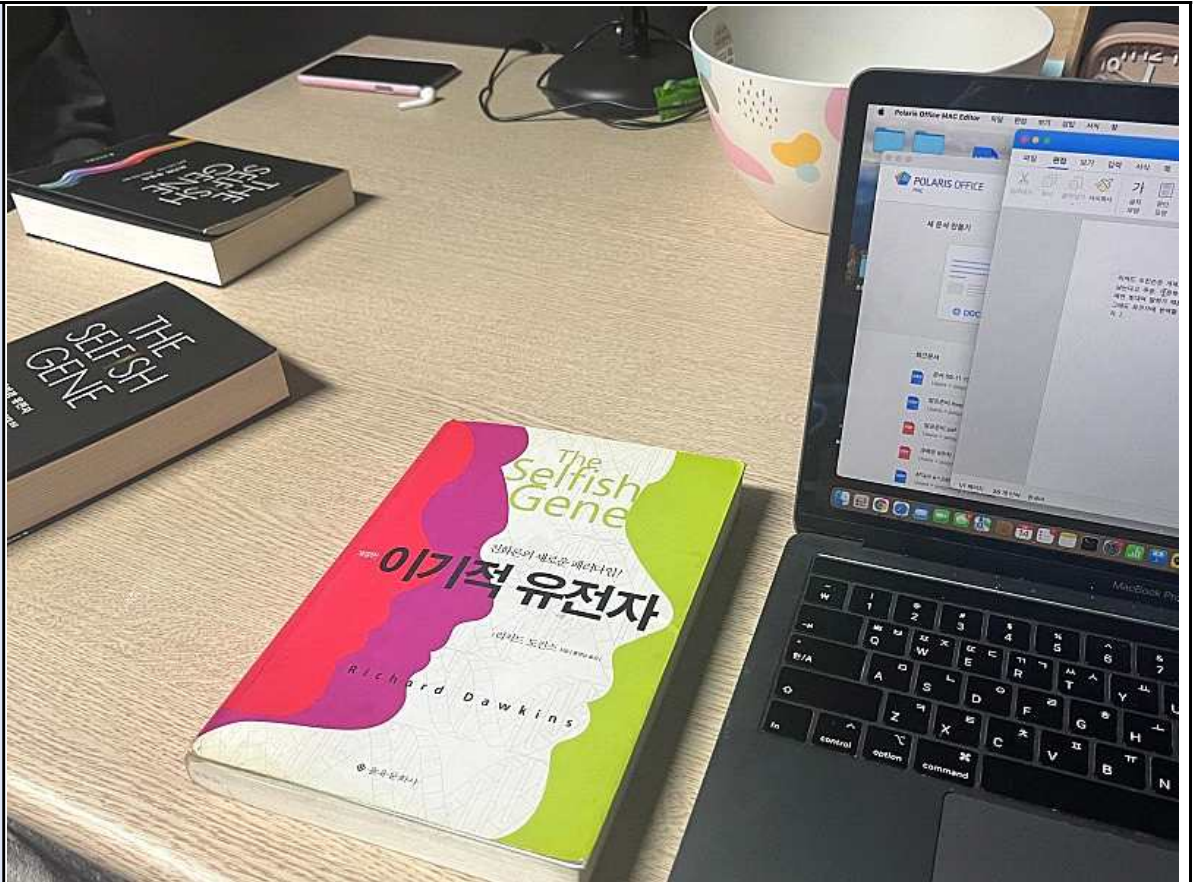
3) 김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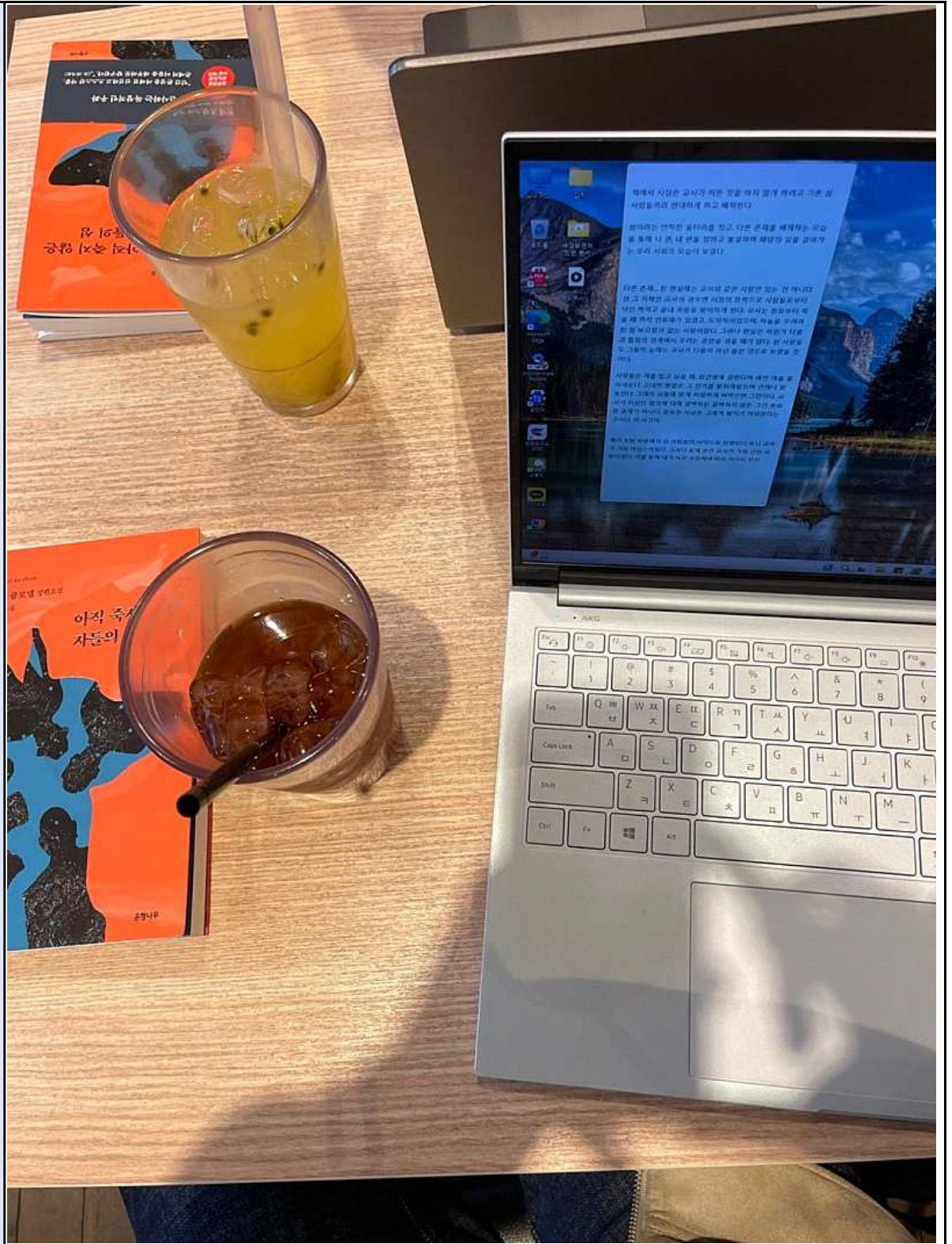
제 인생책 인 것 같음. 문장, 서사 자체도 좋았고 표현력이나 이야기 풀어나가는 방식도 마음에 들 정도로 좋았음. 120쪽에 칠손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가르치고 격려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생각했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자기 가족들이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 배경에 그토록 오랜 시간 쌓여온 사소함이 있었다는 것에 공감이 갔음. 제가 있는 곳 주변에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이 꽤 보였기에, 뭘들이 이를 외면할지 안 할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보고 많이 공감이 갔음.

4) 이혜인

131쪽에 수녀원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너무 크고, 그 안의 어떤 존재들은 너무 작으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작은 사함을 줄 수 없었던 네트처럼이라는 문장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봄. 책을 순서대로 읽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처음에 잘 몰랐으나, 글쓴이의 말을 보고 깨달았음. 좋은 점은 짧고 글씨가 컸고,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영미문학 고강수업에서 읽을 책이 이 책이라 여기서 한 번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음. 수업에서 영미문학을 많이 배우는데, 우리는 외국인의 기준에서 영미문학을 알고 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공감증이 생겼고 이 책이 정말 사소하게 있는 문장들이 출몰 있는 문장들이 많았음. 뭘들이 생기는 가치관들도 남녀평등 등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사소한 부분들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음.

	<p>망귀자의 '모순'」</p> <p>책을 추천하게 된 이유 : 주변 친구들이 재미있었게 읽었다고 추천하여 토독토독 활동에서 읽어보게 되었다.」</p> <p>」</p> <p>1) '모순'이라는 제목의 의미?」</p> <p>」</p> <p>나현 : 동일한 날에 태어난 인간전의 엄마와 이오는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둘의 운명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자상한 남편, 학문적으로 성공한 자식들, 물질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이오였지만 막상 자살을 한 사람은 이오라는 점에서 제목이 '모순'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순'이라는 것이 인생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p> <p>」</p> <p>2) 주인공 '인간전'의 선택이 마지막에 급작스럽게 바뀌는데 이에 대한 생각?」</p> <p>」</p> <p>재호, 현영 : 마지막에 장무 대신 나영규와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p> <p>나현, 대일 : '이오'의 죽음 부분에서 영규를 거절하고 장무와 결혼할 것 같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p> <p>」</p> <p>2-1) 모순에서는 서로 대비가 되는 사람이 되게 많다.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사 진직가인 장무와 안정적인 직장인인 영규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자신이면 어떻게 할것인가?」</p> <p>」</p> <p>나현, 현영 :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p> <p>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는 질병의 창궐을 통해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알제리의 요랑이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한 페스트로 인해 격리된 도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카뮈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고독, 연대, 그리고 무의미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그린다.</p> <p>소설의 주요 인물인 리외 의사는 페스트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끝까지 그 중심에서 싸우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단지 의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뿐이다. 리외의 이러한 태도는 카뮈가 제시하는 '부조리'와 '반항'의 철학과 깊이 연결된다. 그는 페스트라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그 자체가 인간의 고귀함을 드러낸다.</p> <p>또 다른 주요 인물인 타루는 페스트와 싸우기 위해 자원한 인물로, 리외와 함께 활동하면서 점차 친구가 된다. 타루는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페스트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죄악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의 죽음은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인간의 한계와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p> <p>『페스트』는 페스트라는 재앙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준다. 어떤 이는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어떤 이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또 어떤 이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타인을 돕는다. 카뮈는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드러내며, 각기 다른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p> <p>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인간의 연대와 희생정신이다. 격리된 도시에서 페스트와 싸우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고독 속에서도 함께 싸운다. 카뮈는 이를 통해 인간이란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p> <p>카뮈의 『페스트』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들을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소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송유영 (송유영)